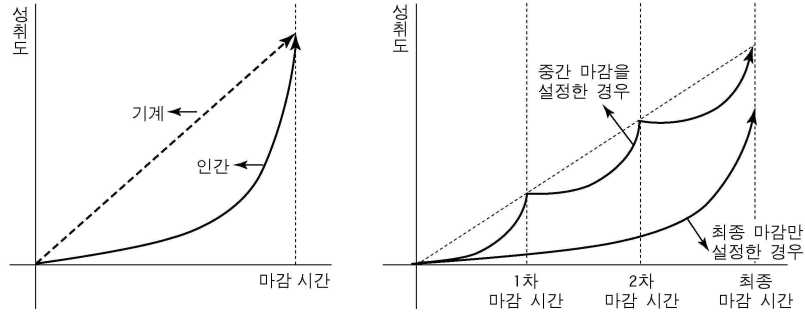


7. 다음 그래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부'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한다. 이끌어 낼 수 있는 논지를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3점]



<보 기>

- ㄱ. 꾸준히 노력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공부 방법은 없다.
- ㄴ. 중간에 가끔씩 쉬면서 공부하는 것이 성적 향상에 효과적이다.
- ㄷ.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느 시기에 있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르다.
- ㄹ.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일별, 주별 공부량을 정해서 공부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8. <보기>는 학교 홈페이지에 올릴 건의문의 서두이다. 이어서 쓸 내용을 구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존경하는 학교 운영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회장 ○○○입니다. 위원장님께 우리 학교 급식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실은 학생 수에 비해 너무 비좁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이 식사를 끝내는 데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립니다. 학생들은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면 급식실로 다투어 뛰어갑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배가 고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점심시간을 활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 ① 급식 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요구 사항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제시해야겠어.
- ② 급식실로 뛰어가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학생의 사례를 언급해야겠어.
- ③ 학교 환경 개선이 쾌적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을 지적해야겠어.
- ④ 점심을 빨리 먹고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이 많은데 도서관의 자리도 부족함을 건의해야겠어.
- ⑤ 식사를 늦게 해서 점심시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해 오후 수업 시간에 졸았던 학생의 경험을 소개해야겠어.

[9~10] 다음은 '국제 교류 연합 동아리'에서 연구 발표를 위해 공동 작성한 개요이다. 잘 읽고 9번과 10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주제문: (㉠)

- I. 청소년 국제 교류의 필요성
- II. 청소년 국제 교류의 실태와 문제점
 - 1. 열악한 재정 지원
 - 2. 주관 기관의 모호성
 - 3. 관련 법규의 비실효성
 - 4. 지원 및 관리 시스템의 미비
- III. 청소년 국제 교류 활성화 방안
 - 1. 기금 조성을 통한 재정 확충
 - 2. 관련 기관의 유기적 관계 확립
 - 3. 법과 제도의 정비
 - 4.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 IV. 청소년 국제 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

9. 이 개요를 바탕으로 글을 쓸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청소년 국제 교류 관련 예산이 계속해서 삭감되어 왔다는 보도 자료
- ② 관련 기관마다 상이한 시행 절차로 어려움을 겪었던 청소년 국제 교류 경험담
- ③ 청소년 국제 교류를 위한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소견
- ④ 청소년 국제 교류 유형과 국가별 선호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최근 통계 자료
- ⑤ 청소년 국제 교류 관련 법규에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보고서

10. ㉠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소년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 ② 청소년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③ 청소년 국제 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제화 시대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 ④ 청소년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 ⑤ 청소년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원책을 강구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11. '함께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한다. <보기>의 조건에 따라 작성한 문구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내용: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삶을 지향하는 의도를 담는다.
발상: 사물의 현상이나 속성을 뒤집어 봄으로써 기존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거꾸로 생각하기' 발상을 한다.
표현: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주제를 강조한다.

- ① 노인과 청소년이 하나 되는 세상, 유토피아와 다를 바 없습니다.
- ② 바다는 깊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한 당신의 열정이 더 깊습니다.
- ③ 작은 것이 더 큼니다. 헌혈은 큰 상처를 낫게 하는 작은 상처입니다.
- ④ 함께 웃는 우리 사회,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 ⑤ 산은 에베레스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산도 있고 뒷산도 있습니다.

12. <보기>의 ㉠~㉣을 고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소나무 재선충이 우리나라 소나무를 멸종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는 잎이 마르면서 생육이 부진해져 ㉠ 자멸하고 만다. 소나무 재선충은 자체 이동 능력이 떨어지지만, 감염된 목재의 이동이나 숙주인 솔수염하늘소의 매개를 통해서 빠르게 퍼져 나간다. 솔수염하늘소가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된 상태에서 다른 소나무로 날아가 솔잎을 갉아먹는 동안, 솔수염하늘소의 몸 안에 기생해 있던 소나무 재선충이 나와서 그 소나무를 감염시킨다. ㉡ 그러고 나서 솔수염하늘소를 방제하면 소나무 재선충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 솔수염하늘소는 3km 이상 날아갈 수 없으므로 중국에서는 감염 지역 주위의 소나무를 모두 베어 내는 방법을 쓴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방법으로는 ㉣ 나무를 베어서 조각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것이 용이하지 않을 때에는 베어 낸 나무를 동강 내어서 약품을 뿌린 후 비닐로 싸 두는 훈증법이 많이 쓰인다. 또 다른 방법은 감염된 나무를 잘게 조각내 소나무 재선충이나 솔수염하늘소 유충을 모두 ㉤ 제거할 수 있다.

- ① ㉠은 '자멸'이라는 어휘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고사'로 바뀌어야겠어.
- ② ㉡은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러므로'로 바뀌어야겠어.
- ③ ㉢은 논지 전개에 일관성을 위해 셋째 문장 뒤에 넣어야겠어.
- ④ ㉣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감염된 나무를'로 바뀌어야겠어.
- ⑤ ㉤은 호응 관계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거하는 것이다.'로 바뀌어야겠어.

13. <보기>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답-'이 쓰인 예를 바르게 분류한 것은?

<보 기>

접미사 '-답-'은 다음 조건에 따라 '-답¹-', '-답²-'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조건]

1. '-답¹-'은 자음 뒤나 모음 뒤 모두에 결합하고, '-답²-'는 자음 뒤에만 결합한다.
2. '-답¹-'은 단어에도 결합하지만 '그는 [싸움에서 이긴 장군]답다.'에서 볼 수 있듯이 단어보다 큰 단위에도 결합할 수 있고, '-답²-'는 단어보다 큰 단위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3. '-답¹-'은 '~자격이나 특성 따위를 지니고 있다'의 의미를 가지고, '-답²-'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의 의미를 가진다.

[예]

㉠ 정답다 ㉡ 신사답다 ㉢ 도서관답다
 ㉣ 참답다 ㉤ 아이답다

- | | |
|-------------------|-------------------|
| -답 ¹ - | -답 ² - |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⑤ ㉡, ㉣, ㉤ | ㉠, ㉢ |

14.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볼 수 있는 것은?

<보 기>

대명사는 인칭에 따라 '나, 우리'와 같은 1인칭, '너, 자네, 그대'와 같은 2인칭, '이분, 그분, 이이, 그이'와 같은 3인칭으로 나뉜다. ㉠ 그러는데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형태가 1인칭, 2인칭, 3인칭 중에서 두 가지 인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2인칭)
 나. 할머니께서는 당신이 젊었을 때 미인이셨다. (3인칭)

- ① 가. 그 일은 저희들이 마저 하겠습니다.
 나. 애들이 어려서 저희들밖에 모른다.
- ② 가.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
 나. 누구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 ③ 가. 그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나. 그와 같은 사실에 깜짝 놀랐다.
- ④ 가. 너희를 누가 불렀니?
 나. 나는 너희 학교가 마음에 든다.
- ⑤ 가. 우리 먼저 갈게요.
 나. 우리 팀이 그 대회에서 우승했다.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무도 찾지 않으려네

㉠ 내 살던 집 뒷마루에 앉으면
 벽에는 아직도 쥐오줌 얼룩져 있으리
 담 너머로 늙은 수유나뭇잎 날리거든
 두레박으로 우물물 한 모금 떠 마시고
 가윗소리 요란한 옛장수 되어
 고추잠자리 새빨간 노을길 서성이려네
 감석 깔린 장길은 피하려네
 내 좋아하던 고무신집 딸아가
 수틀 끼고 앉았던 가갯방도 피하려네
 두엄더미 수북한 쇠전마당을
 금줄기 찾는 허망한 금전꾼 되어
 초저녁 하얀 달 보며 거닐려네
 장국밥으로 깊은 허기 채우고
 읍내로 가는 버스에 오르려네
 쫓기듯 도망치듯 살아온 이에게만
 삶은 때로 애닭기도 하리
 ㉡ 긴 능선 검은 하늘에 박힌 별 보며
 길 잘못 든 나그네 되어 떠나려네

- 신경림, 「고향길」 -

(나) 눈을 가만 감으면 굽이 잦은 풀밭 길이

개울물 돌돌돌 길섶으로 흘러가고
 백양 숲 사립을 가린 초집들도 보이구요
 ㉢ 송아지 물고 오며 바라보던 진달래도
 저녁 노을처럼 산을 둘러 퍼질 것을
 어마씨 그리운 솜씨에 향그러운 꽃지짐
 어질고 고운 그들 멧남새도 캐어 오리
 집집 끼니마다 봄을 씹고 사는 마을
 감았던 그 눈을 뜨면 마음 도로 애젓하오

- 김상옥, 「사향(思鄕)」 -

(다)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_____ [A]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_____ [A]

울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_____ [B]

㉣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_____ [B]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_____ [B]

울엄매야 울엄매, _____ [B]

별밭은 또 그리 멀리 _____ [C]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_____ [C]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_____ [C]

진주 남강 맑다 해도 _____ [D]

오명 가명 _____ [D]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_____ [D]

울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_____ [D]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_____ [E]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_____ [E]

- 박재삼, 「추억에서」 -

1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는 고향에 정착할 수 없는 화자의 심정이 담겨 있다.
- ② (나)는 아름다운 추억이 간직되어 있는 고향을 그리고 있다.
- ③ (다)는 지명을 통해 고향에 대한 정감을 환기하고 있다.
- ④ (나)와는 달리 (가)는 화자가 직접 고향을 찾아가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 ⑤ (가)에 비해 (다)는 고향을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공간으로 묘사하고 있다.

16. ㉠~㉣에 내포된 화자의 정서가 가장 가까운 것끼리 묶은 것은? [1점]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7. (나)의 시상의 흐름에 맞추어 (다)를 개작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 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가 두드러지도록 연을 재배열한다.
- ② 회상 형식이 드러나도록 처음과 끝에 화자의 현재 상황을 부여한다.
- ③ 제재가 병렬적으로 구성되도록 특정한 시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 ④ 점층적인 구성이 되도록 화자의 시선을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시킨다.
- ⑤ 각 연마다 선경 후정(先景後情)의 방식이 드러나도록 전체 구조를 변화시킨다.

18. <보기>의 관점에서 (나)를 감상할 때, 가장 적절한 반응은?

<보 기>

시조는 전통적으로 음악과 관련된 형식을 강조한다. 노래로 불려지지 않는 현대 시조에서도 이러한 형식은 여전히 중요시되어 음수 통제나 율격 구조와 같은 형식적인 제약이 강조되고 있다. 그 결과 시적 감수성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제 현대 시조는 이러한 형식적 제약을 넘어서 새로운 미학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① 의미를 압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글자 수를 제한하고 있군.
- ② 이미지의 흐름에 따라 짜임새 있는 의미 구조를 이루고 있군.
- ③ 어절을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율격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군.
- ④ 사투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시의 리듬감을 잘 살리고 있군.
- ⑤ 정서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3장 구조를 지키고 있군.

19. <보기>는 (다)의 시인이 쓴 다른 작품의 일부이다. [A]~[E]에서 <보기>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1점]

<보 기>

새벽 서릿길을 밟으며
어머니는 장사를 나가셨다가
촉촉한 밤이슬에 젖으며
우리들 머리맡으로 돌아오셨다.

- 박재삼, 「어떤 귀로」 -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쇼윈도는 소비 사회의 대표적인 문화적 표상 중의 하나이다. 책을 읽기 전에 표지나 목차를 먼저 읽듯이 우리는 쇼윈도를 통해 소비 사회의 공간 텍스트에 입문할 수 있다. ‘텍스트’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소통할 목적으로 생산한 모든 인공물을 이르는 용어이다. 쇼윈도는 ‘소비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공간 텍스트이다. 기호학 이론에 따르면 ‘소비 행위’는 이런 ㉠ 공간 텍스트를 매개로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의사소통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옷 가게의 쇼윈도에는 마네킹이 멋진 목걸이를 한 채 붉은색 스커트를 날씬한 허리에 감고 있다. 환한 조명 때문에 마네킹은 더욱 선명해 보인다. 길을 걷다가 환한 불빛에 이끌려 마네킹을 하나씩 살펴본다. 마네킹의 예쁜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 이야기를 시작한다. ‘참 날씬하고 예쁘기도 하네. 저 비싸 보이는 목걸이는 어디서 났을까. 짧은 스커트가 눈부시네……. 나도 저 마네킹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곧 옷 가게로 들어간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소비자가 쇼윈도라는 공간 텍스트를 읽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공간 텍스트는 세 개의 층위(표층, 심층, 서사)로 존재한다. 표층 층위는 쇼윈도의 장식, 조명, 마네킹의 모습 등과 같은 감각적인 층위이다. 심층 층위는 쇼윈도의 가치와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층위이다. 서사 층위는 표층 층위와 심층 층위를 연결하는 층위로서 ㉢ 이야기 형태로 존재한다.

서사 층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는 상호 작용을 한다. 생산자는 텍스트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이야기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소비자는 이야기를 통해 텍스트의 의미와 가치를 해독한다. 이런 소비의 의사소통 과정은 소비자의 ‘서사 행로’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서사 행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첫 번째는 소비자가 제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과정이다. 이때 소비자는 쇼윈도 앞에 멈추어 공간 텍스트를 읽을 준비를 한다. 두 번째는 소비자가 상품을 꼼꼼히 관찰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쇼윈도와 쇼윈도의 구성물들을 감상한다. 세 번째는 소비자가 상품에 부여된 가치를 해독하

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쇼윈도 텍스트에 내재된 가치들을 읽어 내게 된다. 네 번째는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는 과정이다.

이 네 과정을 거치면서 소비자는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사 행로는 소비자의 측면에서 보면 이 상품이 꼭 필요한지, 자기가 그 상품을 살 능력을 갖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쇼윈도는 소비자를 소비 공간으로 유인한다.
- ② 소비자는 서사 행로를 통해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책을 읽는 능력은 공간 텍스트 해독에 도움을 준다.
- ④ 마네킹을 통해서 소비자는 생산자와 의사소통을 한다.
- ⑤ 공간 텍스트에는 생산자가 부여한 의미가 담기게 된다.

21. 위 글에 쓰인 설명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대상을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한다.
- ② 핵심적인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다.
- ③ 현상들 사이의 인과 관계를 밝힌다.
- ④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는다.
- ⑤ 특정한 이론에 따라 현상을 분석한다.

22.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메시지를 담고 있다.
- ②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
- ③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한다.
- ④ 특정한 장소를 점유하고 있다.
- ⑤ 공연 예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23. ㉡, ㉢의 뜻풀이를 <보기>에서 찾으시오? [1점]

<보 기>

이야기 ㉡ ㉠ 어떤 사물이나 사실, 현상에 대하여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글. ㉢ 자신이 경험한 지난 일이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말. ㉣ 어떤 사실에 관하여, 또는 있지 않은 일을 사실처럼 꾸며 재미있게 하는 말. ㉤ 소문이나 평판.

- | | | |
|---|---|---|
| | ㉡ | ㉢ |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24~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토번국이 당나라를 침공하니, 양소유가 대원수가 되어 전장에 나간다. 양 원수가 전장에서 잠깐 조는데, 꿈에 동정호(洞庭湖) 용왕의 작은딸 백능파를 만난다. 양 원수가 그녀를 첩으로 삼자, 남해 태자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양 원수와 싸운다. 양 원수는 자기 군대를 지휘하여 싸움에서 이긴다.

홀연 보니 동남쪽에서 붉은 기운과 안개 자욱이 끼며 용궁 사신 행렬의 깃발이 공중에서 날아오며 사자(使者) 내달아 아뢰되,

“동정호 용왕이 원수의 남해 태자 깨침과 공주 구하심을 듣고 친히 궁전에서 축하하려 한대 스스로 맡은 땅에서 경계를 넘지 못하는 고로 궁궐에서 잔치를 베풀고 삼가 원수를 청하여 욕되시더라도 잠깐 임하시게 하시고 겸하여 공주를 궁중에 돌아오시게 하시더이다.”

원수 왈,

“내 바야흐로 대군을 거느려 적군과 마주하고 있고 동정호가 여기서 만 리 밖이라 비록 가고자 한들 어이 얻으리오.”

사자 왈,

“이미 수레를 갖추어 여덟 용이 끌고 있으니 반나절만 하면 돌아오리이다.”

하더라.

양 원수 용녀와 더불어 함께 수레를 타니 신령한 바람이 수레바퀴에 불어 공중에 오르니 이미 인간 세상에서 몇 천 리를 떠난 줄 알지 못하되 다만 흰 구름이 세계를 덮은 양을 볼러라. 잠깐 사이 동정호에 다다르니 용왕이 맞아 주인과 손님의 예법과 위용이 자못 엄숙하더라.

왕이 수중 종족을 모으고 큰 잔치를 차려 원수가 싸움 이기고 용녀가 집에 돌아옴을 축하할새, 술이 취하매 온갖 음악을 내니 풍류 질탕하여 인간 세상과 다르더라.

원수 보니 앞뜰 좌우에 일천 장사 칼과 창을 들고 북 치고 나오고 여섯 줄의 미녀가 비단옷을 입고 춤추니 웅장하고 화려하여 자못 봄 직하더라.

용왕더러 묻되,

“이 춤이 인간 세상에서 보지 못한 배라. 아지 못게라, 이 무슨 곡조니이까.”

용왕 왈,

“이 곡조는 용궁에도 옛날에는 없더니 과인의 만딸이 경하강(涇河江) 용왕의 아들에게 시집갔다가 욕을 당하매 유의(柳毅)*가 편지로 전하거늘, 전당강(錢塘江)에 사는 아우가 경하강에 가 싸움해 이기고 여아를 데려오니

[A] 궁중 사람이 글을 만들어 전당 파진악(錢塘破陣樂)과 귀주 환궁악(貴主還宮樂)이라 하여 이따금 궁중 잔치에 쓰더니, 이제 원수께서 남해 태자를 이기고 부녀 서로 모임이 전일과 방불할새 이 곡조를 내고 이름을 고쳐 원수 파진악(元帥破陣樂)이라 하나이다.”

원수 크게 기뻐 왕께 사뢰되,

“유 선생이 어디 있나니이까. 가히 서로 볼 수 있으리까.”

용왕 왈,

“유의는 지금 영주의 신선 벼슬을 맡고 있으니 마음대로 오지 못하리이다.”

술잔이 아홉 번 도니 원수 왈,

“군중(軍中)에 일이 많으니 한가히 머물지 못하리로소이다.” 용녀와 더불어 훗날을 기약하더라.

용왕이 원수를 궤문 밖에 가 보내더니 원수 문득 눈을 들어 보니 한 뿔 높고 빼어나 다섯 봉이 구름 속에 들었거늘 왕더러 묻되,

“이 뿔 이름을 무엇이라 하나니이까. 이 양소유 천하를 두루 다녔으되 오직 화산(華山)과 이 뿔을 못 보았나이다.”

용왕이 답하여 이르기를,

“원수 이 뿔을 모르시리이다. 이 곧 남악(南嶽) 형산(衡山)이니이다.”

원수 왈,

“어이 하면 저 뿔을 보리이까.”

용왕 왈,

“날이 아직 늦지 아녘으니 잠깐 구경하셔도 군영에 돌아갈 수 있으리이다.”

원수 수레에 오르니 금방 뿔 아래 이르렀더라. 원수 막대를 끌고 돌길을 찾아 가니 일천 바위 다투어 빼어나고 일만 물이 겨뤄 흐르는 절경이지만, 볼 겨를이 없는지라, 한탄하여 가로되,

㉠ “어느 날 공적을 이루고 물러나 세상 밖 한가한 사람이 될꼬.”

문득 바람결에 경쇠 소리 들리거늘 절 문이 멀지 않은 줄 알고 좇아 올라가니, 한 절이 있으되 그 규모가 극히 장려하고 노승이 당 위에 앉아 바야흐로 설법하니 눈썹이 길고 눈이 푸르고 골격이 빼어나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 모든 중을 거느리고 당에서 내려와 원수를 맞으며 왈,

“산 속 사람이 귀와 눈이 없어 대원수 오시는 줄 알지 못하여 멀리서 맞지 못했으니 죄를 용서하소서. 원수 이번은 돌아올 때 아니거니와 이미 왔으니, 불전 위에 올라가 예불하소서.”

원수 분향 예배하고 불전 아래로 내리더니 문득 실족하여 엎어져 놀라 깨달으니 몸은 영중(營中)의 높은 의자에 기대고 있고 날은 이미 밝았더라.

원수 장졸을 모으고 문 왈,

“너희들 밤에 무슨 꿈이 있더냐.”

㉡ 모두 답 왈,

“꿈에 원수를 모시고 귀신 병졸과 더불어 싸워 이기고 장수를 생포하였나이다. 이 필연 오랑캐를 멸할 징조로소이다.”

원수 크게 기뻐 자신의 꿈을 이르고 장졸을 거느려 백룡담 위로 가 보니 고기 비늘이 떨어져 가득하고 뿔 흘러 내가 되 었더라. 원수 잔을 가져오라 하여 먼저 못 물을 떠 마시고 또 병든 군병을 먹이니 즉시 낫거늘, 그제야 군병과 전마를 일시에 먹이니 즐겨하는 소리 우레 같더라. 적병이 듣고 크게 두려워 항복코자 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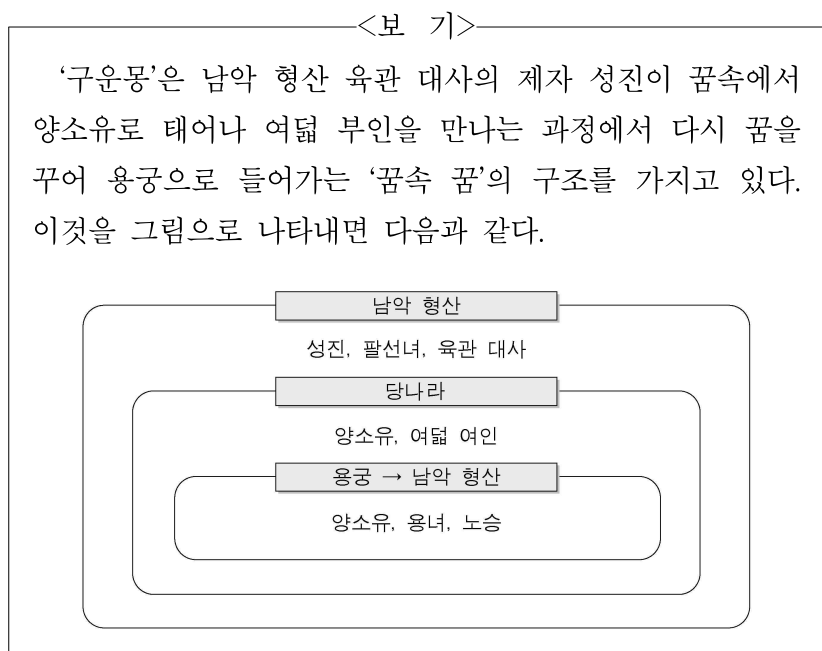
- 김만중, 「구운몽」 -

* 유의: 중국 당나라 소설 '유의전'의 주인공.

2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면이 여러 차례 바뀌고 있다.
- ②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가 나타나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이 환상적으로 그려져 있다.
- ④ 격조 있는 표현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 ⑤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시각에서 그리고 있다.

25. <보기>를 참조하여 위 글을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인물이 활동하는 공간이 현실 층위에 한정되어 실감이 나는군.
- ② ‘꿈속 꿈’의 공간이 꿈 이전의 현실과 연결된다는 점이 묘미가 있군.
- ③ 꿈과 ‘꿈속 꿈’을 통하여 모든 현실적 욕망에 대해 반성하게 하는군.
- ④ ‘꿈속 꿈’의 공간은 양소유와 여덟 여인이 만나게 되는 배경이 되는군.
- ⑤ 꿈과 ‘꿈속 꿈’의 공간이 단혀 있어서 안정감 있는 공간 의식을 갖게 하는군.

26. [A]는 ‘유의전’의 이야기를 빌려와 쓴 부분이다. ‘구운몽’과의 대응 구조를 표로 나타낼 때, ㉠, ㉡에 알맞은 것은? [1점]

	유의전	구운몽
구출자	㉠	양소유
적대자	경하강 용왕의 아들	㉡
구출 대상	동정호 용왕의 맏딸	동정호 용왕의 작은딸

- | ㉠ | ㉡ |
|--------------|------------|
| ① 육관 대사 | 남해 태자 |
| ② 남해 태자 | 동정호 용왕의 아우 |
| ③ 남해 태자 | 동정호 용왕 |
| ④ 동정호 용왕 | 남해 태자 |
| ⑤ 동정호 용왕의 아우 | 남해 태자 |

27. ㉠에 담긴 양소유의 심정을 시조로 표현할 때,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귀거래(歸去來) 귀거래 말뿐이요 갈 이 없어
전원이 장무(將蕪)하니 아니 가고 어떨꼬
초당에 청풍명월이 나명들명 기다리나니
- ② 재 너머 성 권농 집에 술 익닷 말 어제 들고
누운 소 발로 박차 언치 놓아 놀러 타고
아이야 네 권농 계시냐 정 좌수 왔다 하여라
- ③ 강산 좋은 경(景)을 힘센 이 다툼 양이면
내 힘과 내 분으로 어이하어 얻을쏘냐
진실로 금(禁)할 이 없을새 나도 두고 노니노라
- ④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라마는
시절이 하 수상(殊常)하니 울동말동 하여라
- ⑤ 선인교 나린 물이 자하동 흘러들어
반 천년(半千年) 왕업(王業)이 물소리뿐이로다
아이야 고국 흥망을 물어 무엇하리오

28. ㉠을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 ② 갑론을박(甲論乙駁)하며
- ③ 설왕설래(說往說來)하며
- ④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 ⑤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뉴욕 현대미술관에 있는 ‘모로코 사람들’은 마티스의 동방적(oriental) 주제에 대한 동경과 동방의 미술 전통 속에서 확인한 장식적·평면적인 것에 대한 추구가 교차하면서 탄생했다. 제목이 암시하듯 이 그림은 1911년과 1912년에 이루어진 모로코 여행의 추억에서 구상되었다. 여행 중이거나 그 직후에 그려진 작품과는 달리 이미 4~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그려진 이 작품에서, 모로코의 추억은 마티스의 머릿속에서 조형적으로 소화되어 거의 추상적 형태에 가까울 정도로 단순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 그림에 그려진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두고 온갖 논의가 벌어졌다.



화면의 왼편 위쪽에 그려진 회색의 형태가 테라스에서 본 이슬람 사원이고, 테라스의 난간 한쪽 끄트머리에 있는 파란색 바탕에 하얀 줄무늬가 있는 네 개의 원이 남국의 어떤 식물을 나타내는 것 같다는 데에는 모두 이의가 없다. 그러나 그 아래 ㉠ 흰 선의 격자 위에 황색의 원과 녹색의 형태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 미술사학자는 이것을 모로코 사람들이 타일을 깔 바닥 위에 이마를 붙이고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 황색의 원은 터번을 두른 아랍인의 머리가 되고, 녹색의 형태는 아랍 특유의 민소매 긴 옷이 된다. 반면에 다른 비평가는 ‘기도하는 모로코 사람들’을 ‘푸른 잎사귀에 싸인 네 개의 멜론’으로 해석한다.

각각의 모티프가 멜론인지 모로코 사람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애초에 마티스의 마음속에는 아마 명확한 이미지가 있었을 터이지만, 완성된 작품에서 그것은 추상적으로 승화되었다. ㉢ 황색의 원형은 오른쪽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 인물의 머리와 호응하고, 나아가 뒤편의 파란 꽃과 이슬람 사원의 둥근 지붕과 어우러지면서 화면에 부드러운 리듬을 자아내고 있다. 이 원은 멜론이나 아랍 사람의 머리이기에 앞서 화면의 구성 요소가 되는 기하학적 형태이다.

위에서 언급한 황색과 녹색 외에 ㉣ 화면 오른편 아래쪽의 장방형에는 청색이, 바탕에는 옅은 보라색이 각각 칠해져 있다. 한편 화면 왼편에는 화분에 핀 꽃의 청색과 건물의 회색, 그리고 전체의 바탕에 깔린 검정색이 등장한다. 색 그 자체는 화려하다거나 다양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화면에서는 분명히 남국의 창을 생각나게 하는 밝음이 느껴진다. 야수파 시기의 격렬한 색채의 혁명을 거친 마티스는 화면의 밝음, 풍부함이라는 것은 결코 튜브에 들어 있는 물감 색의 생생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훗날 그는 “하나의 색은 단순한 물감에 불과하다. 두 개의 색이야말로 화음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했다. 마티스에게 색채의 비밀은 무엇보다도 그 조화와 율림에 있었던 것이다. ‘모로코 사람들’에서 전체의 배경이 되는

검정색은 어두운 느낌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남국의 투명한 밝음을 느끼게 해 준다. 마티스 자신도 이 검정을 가리켜 ‘빛의 색’이라고 했는데, 본래 어둠의 색인 검정을 ‘빛의 색’으로 변모시킨 것에 ㉤ 색채의 마술사 마티스의 비밀이 있다. ㉥ ‘모로코 사람들’은 마티스의 그런 놀라운 표현력을 보여 주는 걸작이다.

29. ‘모로코 사람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마티스는 이 그림에서 야수파 시기의 격렬하고 화려한 색채를 사용했다.
- ② 모로코 여행 직후에 그려진 이 그림은 모로코의 풍광을 사실적으로 그려 냈다.
- ③ 마티스에 대한 전문가들은 이 그림의 특정 모티프에 대해 각기 다르게 해석한다.
- ④ 이 그림이 밝게 보이는 주된 이유는 화가가 즐겨 사용하는 물감의 생생함 때문이다.
- ⑤ 황색의 원과 녹색의 형태에 대한 분명한 규명과 해석이 이 그림 이해에 중요한 요소이다.

30. <보기>에 제시된 미술 비평 단계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의 성격을 판단해 보았다.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일반적으로 미술 비평은 기술과 분석, 해석, 평가의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기술과 분석의 단계에서는 작품 속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실(소재)들의 목록이 작성되고, 그들의 관계에 대한 정리 작업이 이루어진다. 해석의 단계는 전 단계에서 모은 자료를 활용하여 작품의 주제나 의미를 파악한다. 평가 단계에서는 선행 단계의 작업 결과를 토대로 작품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기술과 분석	해석	평가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31. ㉤가 내포하는 의미를 가장 잘 파악한 것은? [1점]

- ①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물감 혼합법을 사용했다.
- ② 검정색만으로 화면에 신비스러운 효과를 연출했다.
- ③ 검정색과 흰색을 대비시켜 남국의 밝음을 표현했다.
- ④ 검정색이 주위 색과의 조화를 통해 밝은 느낌을 주었다.
- ⑤ 어둠의 색인 검정색이 흰색과의 혼합으로 ‘빛의 색’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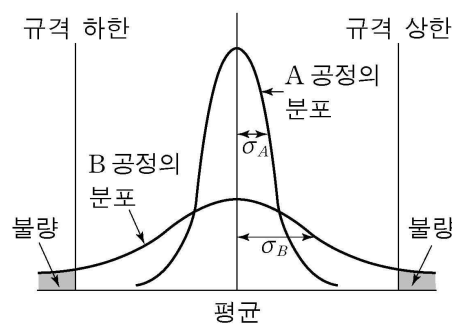
32. 마티스의 문하생이 '모로코 사람들'에 나타난 회화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할 때, 그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슬람 사원과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을 마치 사진처럼 세밀하게 그렸다.
- ② 보기 좋게 배치된 멜론을 분명한 윤곽선과 멜론 고유의 노란색을 이용해 그렸다.
- ③ 연속된 동심원의 형태와 수수한 색채를 통해 화사한 봄별의 느낌을 울동감 있게 그렸다.
- ④ 아름다운 선율과 화음으로 그를 감동시킨 음악가의 초상화를 그리되, 악보를 그려 나가는 그의 손을 강조해 그렸다.
- ⑤ 인류에게 조화로운 삶을 강조했던 성인(聖人)의 일화를 안정된 삼각형 구도 속에서 차분한 색채와 웅장한 형태를 통해 감동적으로 그렸다.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느 공장에서 길이가 7미터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자. 이때 가장 이상적인 제품의 길이는 7미터이다. 하지만 아무리 공정이 안정되고 설비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생산된 모든 제품의 길이가 하나같이 7미터가 되게 하는 것은 ㉠ 어렵고, 7미터를 중심으로 약간씩 오차를 갖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품질 특성값은 평균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특성값이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제품일수록 생산될 가능성은 점차 줄어든다. 여기서 품질 특성값들이 그 평균에서 떨어져 흩어져 있는 정도를 산포도라고 하며, 산포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표준 편차를 이용한다. 시그마(σ)는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기호로 그 값이 작다는 것은 평균을 중심으로 품질 특성값이 덜 흩어져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생산된 제품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균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제품에는 나름대로의 규격이 있는데 이 규격은 일반적으로 규격 하한과 규격 상한으로 주어진다. 규격을 벗어나는 제품은 모두 불량품이 된다. 왼편의 그림처럼 두 공정 A, B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품질 특성값 평균이 규격 하한과 규격 상한의 중간인 목표값에 모두 일치하였다고 가정하자. A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은 산포도가 작아서 규격을 벗어나는 것이 거의 없으나, ㉡ B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은 산포도가 커서 규격을 벗어나는 불량품이 발생하고 있다. 평균에서 규격 하한 혹은 규격 상한까지의 거리를 시그마의 배수로 표현할 때, A 공정은 시그마가 작아 그 배수가 큰 반면, B 공정은 시그마가 커서 A 공정에 비해 그 배수는 작다. 이와



같이 평균에서 규격 하한 혹은 규격 상한까지의 거리가 시그마의 몇 배가 되느냐에 따라 불량률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한 회사가 천명한 6시그마 품질 향상 계획은 기본적으로 규격 하한과 규격 상한이 제품의 규격 평균으로부터 각각 6시그마의 거리에 위치하도록 공정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수준은 10억 개 중에서 2개만이 불량인 것으로 거의 무결점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계나 원자재의 특성, 작업 환경 등의 원인에 의하여 품질 특성값의 평균이 목표값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대략 ± 1.5 시그마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6시그마 수준이 성취되면 불량률은 100만 개 중에서 3.4개 이하로 관리될 수 있게 된다. 이 수치도 충분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6시그마 수준은 새로운 품질 기준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계적 개념인 6시그마를 조직이 도달해야 하는 품질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최근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6시그마 경영의 출발점이다. 6시그마는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6시그마 경영은 아주 적은 불량에 대해서도 그것의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활동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특정한 공정을 바꾸는 것처럼 ㉢ 부분적인 처방보다는 주로 시스템 자체를 개선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데, 필요하다면 6시그마 수준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도록 아예 시스템 전체를 새로 설계하기도 한다. 6시그마를 도입한 세계적인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품질 문제로 야기되는 비용이 감소하였으며,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개선되었고, 고객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33. 위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은?

- ① 품질 관리의 기술은 통계적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 ② 공정의 목표값과 품질 특성값의 평균은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 ③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불량률이 적은 우수한 공정으로 판정하게 된다.
- ④ 6시그마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⑤ 평균에서 규격 상한까지의 거리가 표준 편차의 6배이면 공정은 6시그마 상태에 있다.

34. ㉠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 ① 요즘 그가 바빠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
- ② 그 사람은 까다로워 대하기가 어렵다.
- ③ 선생님의 소설은 모두들 어렵다고 합니다.
- ④ 어려운 살림에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 합니다.
- ⑤ 그는 가난과 외로움으로 청소년기를 어렵게 보냈다.

35. <보기>의 과정을 통해 품질 개선을 한다고 했을 때, ㉠, ㉡의 정보가 생성되는 단계는? [1점]

<보 기>

가. 정의 단계: 중요한 품질 특성들 가운데 개선 대상을 선정한다.
 나. 측정 단계: 측정 방법을 결정하여 현재 품질의 상태를 측정한다.
 다. 분석 단계: 현재 품질의 상태와 그 영향 요인 간의 인과 관계를 파악한다.
 라. 개선 단계: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과 조건을 찾는다.
 마. 통제 단계: 개선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 | | |
|---|---|---|
| | ㉠ | ㉡ |
| ① | 가 | 나 |
| ② | 가 | 라 |
| ③ | 나 | 다 |
| ④ | 나 | 라 |
| ⑤ | 나 | 마 |

36.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강연을 할 때, 강사가 <보기>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시그마 수준	면적	비용	시간	거리
3 시그마	동네 슈퍼마켓	270만 원의 부채 10억 원의 자산	3.5개월 100년	미국 대륙 횡단 거리
4 시그마	가정집 거실	63,000원의 부채 10억 원의 자산	2.5일 100년	고속도로 45분 거리
5 시그마	공중전화 박스	570원의 부채 10억 원의 자산	30분 100년	가까운 주유소까지의 거리
6 시그마	다이아몬드 반지 알	2원의 부채 10억 원의 자산	6초 100년	네 걸음

- ① 시그마 수준에 따른 규격의 변화
- ② 시그마 수준에 따른 불량률의 크기
- ③ 시그마 수준을 구현하기에 적합한 장소
- ④ 시그마 수준의 차이에 따른 공정의 분류
- ⑤ 시그마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37~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매영(梅影)이 부딪힌 창에 옥인 금차(玉人金釵)* 비겼으니
 이삼 백발옹(白髮翁)은 거문고와 노래로다 ————— ㉠
 이윽고 잔 잡아 권할 적에 달이 또한 오르더라 —————

빙자옥질(冰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하니
 아마도 아치 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동각에 숨은 꽃이 척촉(躑躅)*인가 두견화(杜鵑花)인가
 건곤(乾坤)이 눈이어늘 제 어찌 감히 피리
 알괘라 백설 양춘(白雪陽春)*은 매화밖에 뉘 있으리
 - 안민영, 「매화사」 -

- * 옥인 금차: 미인의 금비녀.
- * 척촉: 철쭉.
- * 백설 양춘: 흰 눈이 날리는 음력 정월.

(나)

흰 구름 뿌연 연하(煙霞) 푸른 이는 산람(山嵐)*이라
 천암(千巖) 만학(萬壑)을 제 집으로 삼아 두고
 나명성 들명성 아양도 떠는구나
 오르거니 나리거니 장공(長空)에 떠나거니 광야로
 건너거니
 푸르락 붉으락 열으락 질으락
 사양(斜陽)과 섞어지어 세우(細雨)조차 뿌리는구나
 남여(藍輿)를 재촉해 타고 솔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에
 ㉠ 녹양(綠楊)에 우는 황앵(黃鶯) 교태 겨워하는구나
 나무 사이 우거져서 녹음(綠陰)이 영킨 적에
 ㉡ 백척 난간에 긴 조오름 내어 퍼니
 수면(水面) 양풍(涼風)이야 그칠 줄 모르는가
 ㉢ 된서리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錦繡)로다
 황운(黃雲)은 또 어찌 만경(萬頃)에 펼쳐진고
 ㉣ 어적(漁笛)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초목 다 진 후에 강산이 매물커늘
 조물이 현사하여 빙설(冰雪)로 꾸며 내니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 은산(玉海銀山)*이 안저(眼底)
 에 벌였어라
 ㉤ 건곤도 풍성할사 간 데마다 경이로다
 - 송순, 「면앙정가」 -

- * 산람: 산 속에 생기는 아지랑이 같은 기운.
- * 경궁요대: 옥으로 장식한 궁전과 누대(樓臺).
- * 옥해 은산: 눈 덮인 들판과 산.

(다) 아아! 덕보(德保)*는 만사에 통달하고 명민하며, 겸손하고 고아하며, 식견이 심원하고 아는 것이 정밀하였다. 특히, 율력(律曆)에 정통하여 그가 만든 혼천의(渾天儀) 등 여러 기구들은 깊이 생각하고 오래 연구하여 지혜를 발휘하여 제작한 것들이다. 애초 서양인은 땅이 둥글다는 것만 말하고 회전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덕보는 일찍이 지구가 한 번 돌면 하루가 된다고 논했는데 그 이론이 미묘하고 심오하였다. 이에 관한 책을 미처 쓰지는 못했지만, 만년에 이르러 지구가 회전한다는 사실을 더욱 자신하였다.

덕보를 흠모하는 사람들조차도 ㉠ 그가 일찍부터 과거를 단념한 채 명리(名利)를 생각지 않고 조용히 집에 들어앉아 좋은 향을 피우거나 거문고를 타며 지내는 것을 보고는 ‘덕보가 담박하게 자중 자애하면서 세속을 벗어나 마음을 닦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래서 그가 백사(百事)를 두루 잘 다스리고, 문란하고 그릇된 일을 척결하며, 나라의 재정을 맡거나 외국에 사신으로 갈 만하며, 군대를 통솔하여 나라를 방어하는 데 뛰어난 책략을 지녔다는 것을 통 알지 못했다. 하지만 덕보는 자신의 재주가 남에게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한두 고을의 수령을 지낼 때에도 그저 관아의 장부를 잘 정리하고, 일을 미리미리 처리하며, 아전들을 공손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잘 따르게 함이 고작이었다.

덕보는 서장관(書狀官)인 숙부를 수행하여 북경에 갔을 때, 유리창*에서 육비, 엄성, 반정균을 만났다. 이 세 사람은 모두 고향이 전당(錢塘)으로 문장과 예술에 능한 선비들이었고, 사귀는 이들도 중국의 저명한 인사들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덕보를 큰선비로 떠받들며 그에게 심복(心服)하였다. 덕보는 그들과 수만 글자의 필담을 나눴는데, 그 내용은 경전의 취지, 사람에게 천명이 부여된 이치, 고금의 인물들이 살아간 도리 등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견해는 웅대하고 걸출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마침내 헤어지게 되었을 때, 서로 마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한번 헤어지고 나면 천고에 다시 만나지 못할 테지요. 지하에서 만날 그날까지 부끄러운 일이나 없도록 합시다.”

- 박지원, 「홍덕보 묘지명(洪德保墓誌銘)」 -

* 덕보: 홍대용(洪大容)의 자(字).
* 유리창: 중국 북경의 거리 이름.

3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자연 친화 의식이 드러나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③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사물에 의탁하여 삶에서 얻은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신의 의지와 상반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 있다.

38. (가)의 시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백발옹’은 매화를 완상하는 주체이다.
- ② ‘황혼월’은 매화의 비유적 표현이다.
- ③ ‘아치 고절’은 매화에 부여된 관념적 속성이다.
- ④ ‘두견화’는 매화와 대조되는 존재이다.
- ⑤ ‘눈’은 매화의 생명력을 부각시키는 소재이다.

39. 옛 노래를 알리기 위해 (가)와 (나)를 소재로 영상물을 만들려고 한다. 논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조출한 술상을, (나)는 가마와 피리를 소품으로 준비해야겠어요.
- ② (가)는 구슬프게, (나)는 은은하게 느껴지는 배경 음악을 사용해야겠어요.
- ③ (가)는 늦겨울이나 초봄을, (나)는 사계절을 계절적 배경으로 설정해야겠어요.
- ④ (가)는 밤을 위주로, (나)는 낮부터 밤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해야겠어요.
- ⑤ (가)는 한옥의 뜰을, (나)는 주변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을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해야겠어요.

4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
- ② ㉡: 화자의 한가로운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 풍경의 변화를 통해 적막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④ ㉣: 시·청각적 이미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 ⑤ ㉤: 화자의 감회가 집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41. (가)의 ㉠과 (다)의 ㉡의 거문고 연주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자연으로부터 받은 감흥을 표현하고 있다.
- ② ㉠과 ㉡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자신을 위해, ㉡는 타인을 위해 연주하고 있다.
- ④ ㉠은 풍류를 즐기기 위한, ㉡는 마음을 수양하기 위한 방법이다.
- ⑤ ㉠은 주변 사람과 어울리기 위한, ㉡는 재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다.

42.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덕보’가 취한 평소의 생활 자세를 그리고 있다.
- ② 특정 대상과 비교하여 ‘덕보’의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감탄적인 어조로써 ‘덕보’에 대한 감회를 표출하고 있다.
- ④ ‘덕보’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바뀐 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예를 들어서 ‘덕보’의 인물됨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 ‘사전’ 하면 흔히 ‘ㄱ, ㄴ, ㄷ’ 순으로 배열된 국어사전을 떠올리지만, 인간의 머릿속에도 사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머릿속 사전’이라 부른다. 그런데 책으로 된 종이 사전과 머릿속 사전의 조직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 종이 사전은 한글 자모 순서로 단어를 배열하는 것이 표준이다. 머릿속 사전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다면 말실수를 할 때 한글 자모 순서상 가장 근접해 있는 단어가 선택될 것이다. 가장 가까이 있으므로 그 단어를 얼른 생각해 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청진기’라는 단어 대신에, 사전에서 그 다음에 배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진선’이 선택되는 식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드물다.

머릿속 사전의 조직을 살펴보는 방법의 하나로 단어 연상 실험을 들 수 있다. 이 실험은 자극어를 준 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말해 보게 하거나 떠오르는 단어를 생각나는 대로 모두 말해 보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자극어로 ‘바늘’을 제시했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반응어는 ‘실, 핀, 날카롭다, 꿰매다’ 등이다. 이는 깊이 사고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어가 머릿속에서 자극어와 연관을 맺고 있는 단어들이라는 가정에 부합한다. 우리는 ‘하늘’이라든가 ‘공부’와 같이 ‘바늘’과 상관이 없는 반응어를 기대하지 않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드물다.

연상이라는 것이 비록 언어의 규칙 기반적인 다른 측면들처럼 명쾌한 설명력을 지니지 못한다 해도, 그동안의 연구 결과 사람들은 주로 ㉠ 등위적, 배열적, 상위적, 동의적 연결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떠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등위적 연결은 ‘나비-나방’처럼 수준이 유사한 단어들과 ‘왼쪽-오른쪽’처럼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의 연결을 말한다. 배열적 연결은 ‘소금-물’처럼 함께 나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단어들의 연결을, 상위적 연결은 ‘나비-곤충’처럼 하위어와 상위어의 연결을, 동의적 연결은 ‘배고프다-굶주리다’처럼 뜻이 유사한 단어들의 연결을 말한다. 이들 중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들은 등위적, 배열적 연결 관계에 있는 단어들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이것들의 연결이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 덧붙여 실어증 환자들에 관한 실험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험에 의하면, 어떤 환자는 부엌 용구의 이름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지만 과일 이름은 모두 잊어버렸고, 어떤 환자는 의복 이름은 말할 수 있었지만 옷감의 종류는 말하지 못했다. 이는 ‘부엌 용구, 과일 이름, 의복 이름, 옷감 이름’ 등이 모두 독립된 장(場)으로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음을 함축한다.

위와 같은 실험들을 통해 머릿속 사전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첫째, 머릿속 사전은 서로 관련을 맺는 단어들이 하나의 장을 이루어 거미줄처럼 조직되어 있을 것이다. 둘째, 단어들 사이의 연결 정

도는 그 관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강력한 연결 관계를 맺는 단어들이 있어서 이 단어들은 서로 가까운 곳에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셋째, 단어들은 일정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무리지어 모여 있는데,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각 장들은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말은 하나의 장이 다른 장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4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머릿속 사전에서 단어들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 ② 단어 연상 실험으로 단어들의 연결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 ③ 자극어와 반응어는 머릿속에서 가까운 곳에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 ④ 실어증 환자들의 사례는 단어들이 장으로 조직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반응어는 깊은 사고를 통해 나오므로 머릿속 사전의 연결 방식을 잘 반영한다.

44. [A]의 논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어-, 춥다. 문 들어온다, 바람 단아라.”
- ② “그는 상당한 언어 곤경, 아니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어.”
- ③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동시에 떠올라) “곰 사합니다.”
- ④ 갑: (하늘의 별을 보려고) “거기 현미경 좀 가져와 봐.”
을: “망원경 말하는 거야?”
- ⑤ 갑: “그거 있잖아, 그……. 생각이 날 듯한데. 장어, 쟁어, 정어, 정우 그게 뭐더라.”
을: “도대체 뭘 말하려는 거야.”

45. <보기>의 예들을 ㉠의 구분에 따라 알맞게 나열한 것은? [1점]

<보 기>

㉠. 고무-줄	㉡. 잠자리-채	㉢. 두껍다-얇다
㉣. 남자-사람	㉤. 북쪽-남쪽	

	등위적 연결	배열적 연결	상위적 연결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49.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보기>의 ‘순이’가 ㉠이라고 할 때, ‘순이’가 취할 행동과 그 이유로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순이는 오늘 외할머니와 친할머니 중 한 분을 하루 동안 간병하기로 했다. 연세가 더 많으신 외할머니께서는 간병할 사람이 있고, 친할머니께서는 간병할 사람이 없다는 것 이외에 두 분이 처한 상황 조건은 완전히 동일하다.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가까웠던 순이는 친할머니보다는 외할머니를 더 좋아한다.

- ① 두 분 다 소중하므로 누구를 도와도 상관없다.
- ② 외할머니를 더 좋아하므로 외할머니를 돕는다.
- ③ 친할머니께서 더 젊으시므로 친할머니를 돕는다.
- ④ 친할머니를 간병할 사람이 없으므로 친할머니를 돕는다.
- ⑤ 외할머니께서 연세가 더 많으시므로 외할머니를 돕는다.

50. 위 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대화를 접하고 보일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A: 효심이 지극한 왕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다면, 법의 집행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B: 당연히 왕의 아버지를 잡아들여야겠지.
 A: 그러면 왕이 그것을 막지 않겠습니까?
 B: 왕이 사사로이 막을 수는 없지. 왕의 직분으로 판단해야 하니까.
 A: 이런 상황에서 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B: 내가 그 왕이라면 왕의 직분을 버리고 아버지와 도망가겠네.

- ① 왕이 아버지의 체포를 허락한다면 그것은 개인적 선호가 작용한 거야.
- ② 집행관이 왕의 아버지를 잡아들인다면 강경한 공평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을 거야.
- ③ 왕이 사사로이 판단하더라도 지위를 버린다면 공평주의자들은 비난하지 않을 거야.
- ④ 강경한 공평주의자들은 왕의 신분도 지키고 아버지도 구하는 길을 찾으려고 할 거야.
- ⑤ 온건한 공평주의자들이 볼 때, 왕이 아버지의 체포를 금지하는 것은 ‘민수’의 행동과 차이가 없어.

51. 문맥으로 보아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각별한 ② 고유한 ③ 독특한
- ④ 상이한 ⑤ 특이한

[52~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런데 그 가을의 어느 날이었다. 이미 가끔씩 노환으로 자리보전을 하던 석담 선생은 그날도 병석에서 일어나기 바쁘게 종지와 붓을 찾았다. 그것도 그 무렵에는 거의 쓰지 않던 대필(大筆)과 전지(全紙)였다. 벌써 몇 달째 종지와 붓을 가까이 않던 고죽은 그런 스승의 집착에 까닭 모를 심화를 느끼며 ㉠ 먹을 갈기 바쁘게 스승 곁을 물러나고 말았다. 어딘가 모르게 스승의 과장된 집착에는 제자의 방향을 비웃는 듯한 느낌이 드는 데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동안 뜰을 서성이는 사이에 그는 문득 늙은 스승의 하는 양이 궁금해졌다.

방에 돌아오니 석담 선생은 붓을 연적에 기대 놓고 눈을 감은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바닥에는 방금 쓰다가 그만둔 것인 듯 ‘萬毫齊力(만호제력)’ 녀 자 중에서 앞의 석 자만이 띄어져 있었다.

“소재(蘇齋)*는 일흔여덟에 참깨 위에 ‘天下泰平(천하태평)’ 녀 자를 썼다고 한다. 나는 아직 일흔도 차지 않았는데 이 녀 자 ‘萬毫齊力’을 단숨에 쓸 힘도 남지 않았으니…….”

그렇게 탄식하는 석담 선생의 얼굴에는 자못 처연한 기색이 떠올랐다. 그러나 고죽은 그 말을 듣자 억눌렀던 심화가 다시 솟아올랐다. 스승의 그 같은 표정은 그에게는 처연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만만함으로 비쳤다.

“설령 이 글을 단숨에 쓰시고, 여기서 금시조(金翅鳥)*가 솟아오르며 향상(香象)*이 노닐들, 그게 선생님을 위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고죽은 자신도 모르게 심술궂은 미소를 띠며 물었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힌 채 기진해 있던 석담 선생은 처음 그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이내 그 말의 참뜻을 알아들은 듯 매서운 눈길로 그를 노려보았다.

“무슨 소리냐? 그와 같이 드높은 경지는 글씨를 쓰는 이면 누구든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이르러 보고 싶은 경지다.”

“거기에 이르러 본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고죽도 지지 않았다.

“㉡ 태산에 올라 보지도 않고, 거기에 오르면 그보다 더 높은 산이 없을까를 근심하는구나. 그럼 너는 일찍이 그들이 성취한 드높은 경지로 후세에까지 큰 이름을 드리운 선인들이 모두 쓸모없는 일을 하였던 말이나?”

“㉢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인 것입니다. 도대체 종이에 먹물을 적시는 일에 도가 있는들 무엇이며, 현묘(玄妙)함이 있는들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 도로 이름하면 백정이나 도둑에게도 도가 있고, 뜻을 어렵게 꾸미면 장이나 야공(冶工)의 일에도 현묘함이 있습니다. ㉤ 천고에 드리우는 이름이 있다 하나 이 나[我]가 없는데 문자로 된 나의 껍데기가 낯모르는 후인들 사이를 떠돈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서화가 남겨진다 하나 단단한 비석도 비바람에 깎이는데 하물며 종지와 먹이겠습니까? 거기다가 ㉥ 그것은 살아 그들의 몸을 편안하게 해 주지도 못했고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을 도울 수도 없었습니다. ㉦ 그들은 그 허망함과

쓰라림을 감추기 위해 이를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어떤 경지를 설정하여 자기를 위로하고 이웃과 뒷사람을 홀렸던 것입니다…….”

그때였다. 고죽은 불의의 통증으로 이마를 감싸 안으며 옆 드렸다. 노한 석담 선생이 앞에 놓인 벼루 뚜껑을 집어던진 것이다. 샘솟듯 솟는 피를 흠치고 있는 고죽의 귀에 늙은 스승의 광기 어린 고함 소리가 들려 왔다.

“내 일찍이 네놈의 천골(賤骨)을 알아보았더니라. 가거라. 너는 진작부터 저잣거리에 나왔어야 할 놈이었다. 용케 천골을 숨기고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㉔ 이제 나가면 글씨 한 자에 쌀 뒷박은 후히 받을 게다…….”

결국 그 자리가 그들의 마지막 자리였다. 그 길로 석담 선생의 집을 나선 고죽이 다시 돌아온 것은 이미 스승의 시신이 입관된 뒤였다.

벌써 삼십여 년 전의 일이건만 ㉔ 고죽은 아직도 희미한 아픔을 느끼며 이제는 주름살이 덮여 흉터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 왼쪽 이마 어름을 만져 보았다. 그러나 그와 함께 떠오르는 스승의 얼굴은 미움도 두려움도 아닌, 그리움 그것이었다.

“아버님, 김 군이 왔습니다.”

다시 추수의 목소리가 그를 끝 모를 회상에서 깨나게 하였다. 이어 방문이 열리며 초헌(草軒)의 둥글넓적한 얼굴이 나타났다. 대할 때마다 만득자(晩得子)를 대하는 것과 같이 유별난 애정을 느끼게 하는 제자였다. 사람이 무던하다거나 이렇다할 요구 없이 일 년 가까이나 그가 없는 서실을 꾸러 가고 있는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글씨 때문이었다. 붓 쥐는 법도 익히기 전에 행서(行書)를 휘갈기고, 점획 결구(點劃結構)도 모르면서 초서(草書)며 전서(篆書)까지 그려 대는 **요즈음 젊은이들** 답지 않게 초헌은 스스로 정서(正書)로만 삼 년을 채웠다. 또 서력(書歷) 칠 년이라고는 하지만 칠 년을 하루같이 서실에만 붙어 산 그에게는 결코 짧은 것이 아닌데도 그 봄의 고죽 문하생 합동전에는 정서 두어 폭을 수줍게 내놓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㉔ 그의 글은 서투른 것 같으면서도 이상한 힘으로 충만돼 있어, 고죽에게는 남모를 감동을 주곤 했다. 젊었을 때는 그토록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윽하게 느껴지는 스승 석담의 서법을 연상케 하는 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 이문열, 「금시조(金翅鳥)」 -

- * 소개: 청나라 학자 옹방강의 호.
- * 금시조: 불경에 나오는 상상의 큰 새.
- * 향상: 상상의 큰 꼬끼리.

52.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심인물들이 상대를 공박하며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을 비약시킴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연계하고 있다.
- ④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하여 이야기의 입체감을 높이고 있다.
- ⑤ 갈등의 양상을 첨예하게 그림으로써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53. ㉑~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석담’의 집착을 못마땅해 하는 ‘고죽’의 심리가 나타나 있다.
- ② ㉒: 예술의 드높은 경지에 대해 회의하는 ‘고죽’을 ‘석담’이 나무라고 있다.
- ③ ㉓: 재주는 많으나 자신의 뜻에 어긋난 ‘고죽’을 ‘석담’이 질책하고 있다.
- ④ 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어버렸던 ‘석담’에 대한 ‘고죽’의 원망이 되살아나고 있다.
- ⑤ ㉔: ‘초헌’이 훗날 대가로 성장하리라는 ‘고죽’의 예감이 담겨 있다.

54. ㉑~㉔ 중, <보기>를 근거로 비판할 수 있는 것은? [1점]

<보 기>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현대 한국 독자들에게 까지 소개되어 널리 읽히고 있다. 셰익스피어는 이 작품을 남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로 평가 받고 있다.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55. 위 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술이 갖는 효용성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군.
- ② 예술의 경지를 깨달아 가는 과정이 험난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군.
- ③ 예술가로서 스승과 제자의 만남과 헤어짐을 작가는 극적으로 그려 내었군.
- ④ 예술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태도에 대해 작가는 잘못되었다고 말하는군.
- ⑤ 예술을 창조하는 이들이 겪는 정신적 고뇌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군.

56. ‘요즈음 젊은이들’을 두고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우물에 가 송냥 찾는다.
- ②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 ③ 기지도 못하면서 뛰려고 한다.
- ④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 읊는다.
- 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리굽쇠는 굽기가 일정한 금속 사각 막대를 U자형으로 구부리고 아래쪽에 쇠기둥을 ㉠ 단단하게 용접한 것으로, 작은 망치로 때리면 일정한 진동수의 음을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소리굽쇠는 작을수록 높은 음을 낸다. 원래 소리굽쇠는 1711년에 영국의 트럼펫 연주자인 존 쇼어가 악기를 조율할 때 기준음을 내는 도구로 개발한 것이었다. 처음에 사람들은 소리굽쇠가 건반악기의 어떤 음을 낸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초당 몇 회의 진동을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리굽쇠로 악기를 조율하였기에 지역마다 연주자마다 악기들은 조금씩 다른 기준음을 가졌다. 소리굽쇠가 정확하게 얼마의 진동수를 갖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정확한 측정 장치가 없는 당시로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처럼 보였다. 이 문제는 독일의 음향학자인 요한 샤이블러에 의해 1834년에 명쾌하게 해결되었다.

샤이블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다른 진동음을 내는 두 개의 소리굽쇠가 만들어 내는 맥놀이 진동수를 세는 방법을 사용했다. 맥놀이란 진동수가 약간 다른 두 개의 소리가 간섭을 일으켜 소리가 주기적으로 ㉡ 세어졌다 ㉢ 약해졌다 하는 현상이다. 서로 다른 진동수를 갖는 두 음이 함께 울릴 때 생기는 맥놀이의 진동수는 두 음의 진동수의 차에 해당한다. 맥놀이 진동수는 초당 4회, 즉 4Hz(헤르츠) 정도일 때 귀로 들으면서 측정하기에 적당하다.

샤이블러의 실험에는 여러 개의 소리굽쇠가 필요했다. 그는 어떤 건반악기의 A 음과 같은 음을 내도록 만든 1번 소리굽쇠와 그것보다 약간 크게 만든 2번 소리굽쇠 사이의 맥놀이 진동수가 4Hz가 되게 하였다. 이것은 1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가 2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보다 4Hz만큼 큼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샤이블러는 좀 더 큰 3번 소리굽쇠를 만들어서 2번 소리굽쇠와 함께 울렸을 때 역시 초당 4회의 맥놀이가 일어나도록 조절하였다. 이렇게 해서 3번 소리굽쇠는 1번 소리굽쇠에 비하여 8Hz만큼 낮은 진동수의 음을 내게 되었다. 샤이블러는 이런 방법으로 1번 소리굽쇠보다 정확하게 한 옥타브 낮은 음을 내는 소리굽쇠가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새로운 소리굽쇠를 만들었다. 그랬더니 56번 소리굽쇠가 1번 소리굽쇠보다 정확하게 한 옥타브 낮은 음을 내었다. 샤이블러는 56번 소리굽쇠가 1번 소리굽쇠에 비하여 $4\text{Hz} \times 55$, 즉 220Hz만큼 낮은 진동음을 낸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었다.

한 옥타브만큼 차이 나는 두 음 중 높은 음의 진동수는 낮은 음의 진동수의 두 배가 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으므로, 이로부터 샤이블러는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를 계산해 낼 수 있었다. 1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는 56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의 두 배이고 그 차이는 220Hz이므로, 1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는 440Hz, 56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는 220Hz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에 의지하여 샤이블러는 1834년에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과학자들의 회의에서 건반의 A 음을

440Hz로 삼아 음 높이의 기준을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 ‘슈투트가르트 피치’는 이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 조율의 기준음으로 한 동안 널리 쓰였다.

57. 샤이블러의 업적을 바르게 말한 것은? [1점]

- ① 맥놀이 현상을 최초로 발견하였다.
- ② 악기의 기준음의 정확한 진동수를 구하였다.
- ③ 음 높이가 높아질수록 진동수도 커짐을 발견했다.
- ④ 악기의 조율에 사용하기 위해 소리굽쇠를 발명했다.
- ⑤ 소리굽쇠를 음향학 연구를 위한 실험 도구로 채택했다.

58.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샤이블러가 사용한 1번 소리굽쇠가 200Hz의 고유 진동수를 갖는다고 할 때, 실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 1번 소리굽쇠보다 한 옥타브 낮은 음을 내는 소리굽쇠는 100Hz의 고유 진동수를 가질 것이다.
- ㄴ. 처음과 마지막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의 차이는 220Hz 일 것이다.
- ㄷ. 이 실험에서 사용해야 하는 소리굽쇠의 개수는 50개일 것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59. ㉣이 도입된 곳에서 일어났을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악보의 형태가 바뀌었을 것이다.
- ② 음악 애호가들이 증가했을 것이다.
- ③ 낮은 음을 쓰는 곡이 많아졌을 것이다.
- ④ 맥놀이에 대한 실험 연구가 증가했을 것이다.
- ⑤ 음악가들이 표준 소리굽쇠를 요구했을 것이다.

60. ㉠, ㉡, ㉢의 의미 관계를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이런 배열로 보기 어려운 것은? [1점]

<보 기>

단단하다 ← 반의 관계 → 약하다 ← 반의 관계 → 세다

- ① 어리다 ↔ 젊다 ↔ 늙다
- ② 나쁘다 ↔ 좋다 ↔ 싫다
- ③ 받다 ↔ 주다 ↔ 빼앗다
- ④ 밋다 ↔ 곱다 ↔ 거칠다
- ⑤ 밀다 ↔ 당기다 ↔ 늦추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